

## 한국언론을 통해 본 한미관계의 변천

이병재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2000년대 이후** 한미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본 글에서는 국내 주요언론의 한미관계 관련 기사에 대한 시계열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1990년대 이후의 한미관계의 양상과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보수와 진보 성향의 일간지에서 한미 관계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변화시점 탐색기법, 키워드 빈도 분석, 중심어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토픽모델을 사용하여 각 시기별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 관한 기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한 단어는 “북한”이었으며, 2010년대 이후 “중국”에 대한 언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미사일”과, “중국”에 대한 언급은 “사드”, “미사일”에 대한 언급과 관련되었다. 변화시점 포착기법을 사용하여 2000년대 이후 기사의 양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견하였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 2003년 이라크 파병 요청,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 시위, 한미 FTA 등을 둘러싼 뉴스량의 증가가 미국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2000년대 이후 정부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북한 관련 문제들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후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미국”, “한미관계”와 밀접하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시계열적 토픽변화 분석을 통하여 200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서 여전히 북한 혹은 안보에 관한 이슈가 가장 큰 관심사였으나, 관련된 뉴스에 추가해서 한미 간의 갈등 혹은 협력이라는 이슈의 비중도 커지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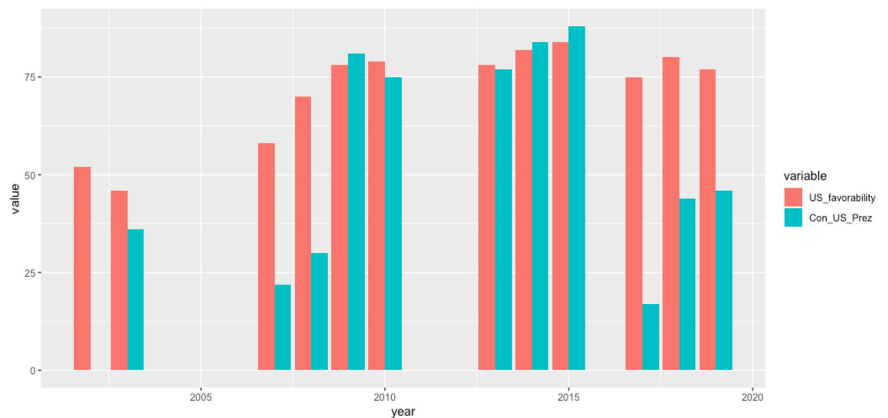
## 목 차

1. 서론
2. 한미관계 관련 언론기사의 양적 변화
3. 한미관계의 구조적 변화시점
4. 한미관계 관련 주요 키워드 분석
  - 1) 피크시기 주요 키워드
  - 2) 행정부별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5. 한미관계 주요 토픽 시계열적 변화
6. 결론

## 1. 서론

- ◆ 한미관계는 1866년의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시작된 이래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본격적인 의미의 한미관계의 시작은 1945년 이후의 미군정 시기부터라고 볼 수 있음. 맥아더 사령관의 미군정청 포고문 제 1호에 대한 논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 미국 및 미군에 대한 동맹에 대한 상이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제국인가 우방인가?”(박태균 2006), “하나의 동맹, 두 개의 렌즈”(Shin 2010),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2021) 등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관계의 성격에 대한 많은 논쟁이 존재하고 있음.
- ◆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77%로 이는 서베이 대상 국가중 4 번째로 높은 수치임. 하지만, 2000년도 초부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 20년의 기간 동안 호감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

〈그림 1〉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 및 미국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출처: Pew Research Cent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성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 (favorability)와 미국대통령에 대한 신뢰도(confidence)의 변화를 보여줌.

- ◆ 〈그림 1〉은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favorability)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confidence)의 변화를 보여줌.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도는 2000년대 초인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51%, 47%를 기록하여 해당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줌. 이 시기는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고와 그 재판을 둘러싸고 발생한 촛불시위 등이 발생했던 시

기였음. 미국에 대한 선호도는 2007년 이후 점차로 증가하여 2010년경 대략 75% 가량의 한국인 응답자가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음.

- ◆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많은 변화를 보임.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3년, 2007년, 2008년, 2017년 낮은 신뢰도를 기록하는 데 각각, 36%, 22%, 30%, 17%를 기록하였음. 2003년, 2007년, 2008년은 부시 대통령 시기였으며, 이 기간의 한미 간의 주요 쟁점은 이라크 파병(2003년)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2008년)이었음. 2017년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1년차였으며,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고조되던 시기였음.
- ◆ 2009년~2015년까지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며, 2009년, 2014년, 2015년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에 대한 호감도보다 높게 나타남. 이 시기는 민주당 집권기이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시기였으나,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도인지,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인지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함.
- ◆ 2017년 이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한 하락을 보이지만, 같은 시기 미국에 대한 선호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2000년대 이후 미국에 대한 선호도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의 패턴은 1) 미국에 대한 선호도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낮았던 시기(부시 대통령 1기 재임시절), 2) 미국에 대한 선호도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높았던 시기(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기), 그리고 3) 미국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낮게 나타나는 시기(부시 대통령 2기 및 트럼프)로 구별될 수 있음.
- ◆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미디어의 보도에 의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물론,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미군철수, 전작권전권 이전 등이 주로 등장하는 키워드임은 추론 가능하지만, 이러한 키워드가 등장하는 시기 및 맥락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정파적으로 차이가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한미관계 관련 뉴스가 어떻게 보도되어 왔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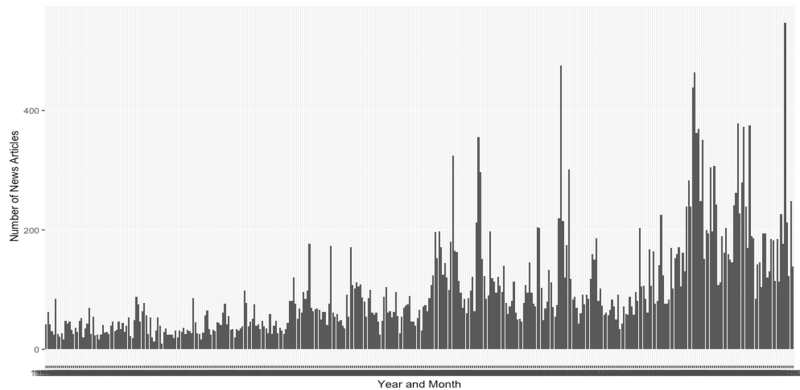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많은 변화를 보임.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3년, 2007년, 2008년, 2017년 낮은 신뢰도를 기록하는 데 각각, 36%, 22%, 30%, 17%를 기록하였음.*

*2000년대 이후 미국에 대한 선호도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의 패턴은 1) 미국에 대한 선호도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낮았던 시기(부시 대통령 1기 재임시절), 2) 미국에 대한 선호도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높았던 시기(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기), 그리고 3) 미국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낮게 나타나는 시기(부시 대통령 2기 및 트럼프)로 구별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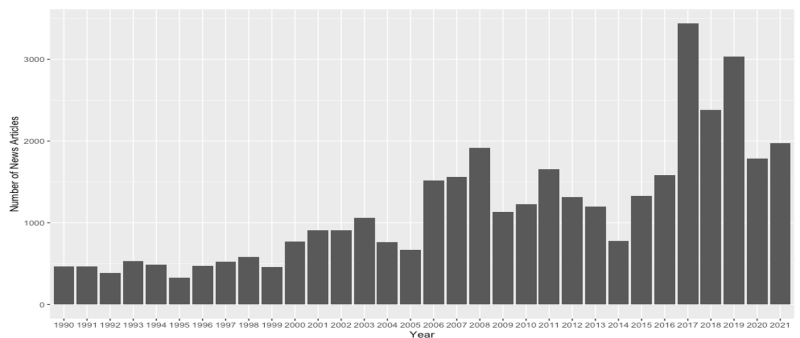
## 2. 한미관계 관련 언론기사의 양적 변화

- ◆ 국내 언론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하여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인 한겨레, 경향신문의 한미관계를 다룬 기사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 199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기사를 수집하였음(조선일보의 경우 2018년부터의 데이터만 가용하기 때문에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음).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21,656건, 중앙일보 7,900건, 한겨레 3,817건, 경향신문 4,249건, 조선일보 3,437건(2018년부터)으로서 총 41,062건의 한미관계를 다룬 기사를 분석하였음.

〈그림 2〉 한미관계에 대한 기사수, 1990-2021(월별)



〈그림 3〉 한미관계에 대한 기사수, 1990-2021(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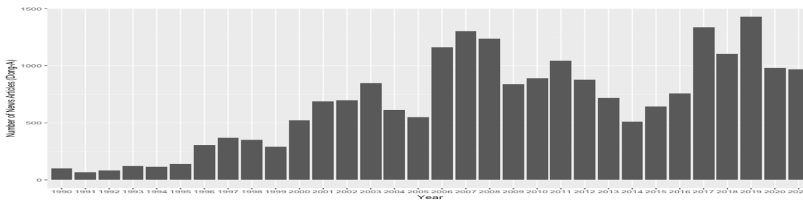


- ◆ 〈그림 2〉와 〈그림 3〉은 한미관계에 대해 언급한 4개 신문(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사설을 제외한 기사수를 199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별, 연도별로 나타낸 것임.

- ◆ 전체적으로 한미관계를 다룬 기사의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급격한 증가가 관찰되는 해는 2001년-2003년, 2006년-2008년, 2011년~2012년, 2017년-2019년의 기간으로서 <그림 1>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던 시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임. 이 시기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자유무역협정 (Korea-US FTA), 트럼프 행정부 초기 북한미사일 문제 등이 양국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시기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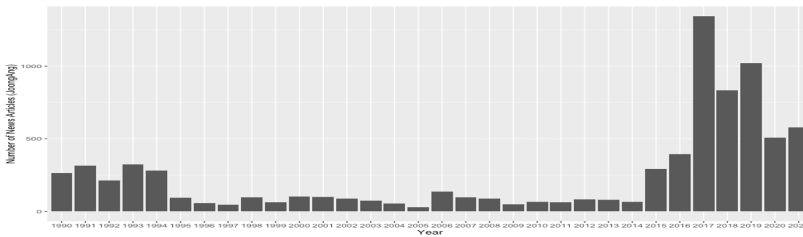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한미관계를 다룬 기사의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급격한 증가가 관찰되는 해는 2001년-2003년, 2006년-2008년, 2011년~2012년, 2017년-2019년의 기간으로서 <그림 1>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던 시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4> 한미관계 관련 기사수(동아일보), 199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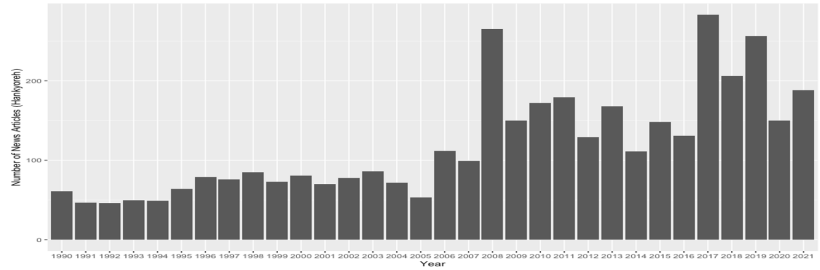
- ◆ <그림 4>는 한미관계를 다룬 동아일보의 기사수의 시계열적 추이를 나타냄. 대략, 2001-2003년, 2006년-2008년, 2017년-2019년에 각각 이전 시기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보임.

<그림 5> 한미관계 관련 기사수(중앙일보), 199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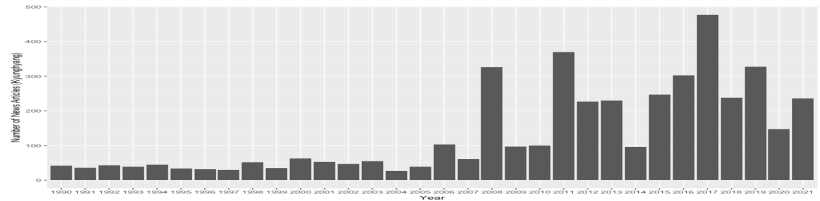
- ◆ <그림 5>는 한미관계를 다룬 중앙일보의 기사수의 시계열적 추이를 나타냄. 중앙일보는 2017년 이후 기사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2020년-2021년 감소함.
- ◆ <그림 6>은 한겨레신문의 한미관계 관련 기사수의 추이를 나타냄. 대략 1995년 무렵 소폭의 증가를 나타낸 후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 후, 2008년 급격한 증가 후 감소함. 한미관계 관련 기사수에서 2008년 이후 시기는 2007년 이전과는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임. 여타 신문과 마찬가지로 2017년~2019년은 급격한 증가를 보임.

〈그림 6〉 한미관계 관련 기사수 (한겨레), 1990-2021



- ◆ 〈그림 7〉은 경향신문의 한미관계 관련 신문기사 수의 변화의 추이를 나타냄. 경향신문은 199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기사수가 적으며, 2008년, 2011년~2013년, 2017년에 기사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임.

〈그림 7〉 한미관계 관련 기사수 (경향신문), 199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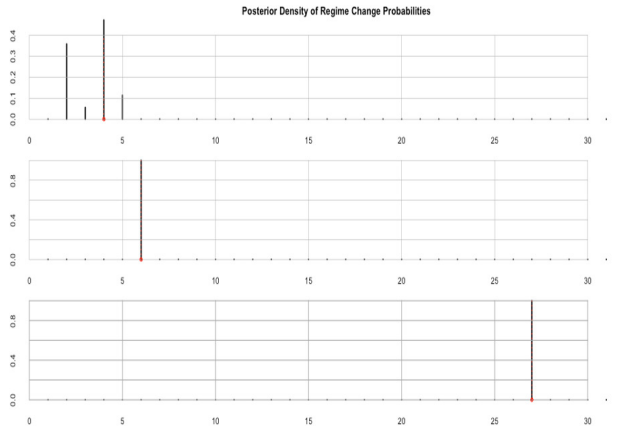
- ◆ 기사수의 급격한 증가는 2008년, 2011년~2012년, 2017년~2018년 등 한미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

동아일보의 경우 변화시점이 1990년~1991년, 1999년~2000년, 그리고 2005-2006년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줌(〈그림 8〉). 중앙일보의 경우 1990년대 초와 2017년에 명확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그림 9〉), 한겨레의 경우 2006년~2008년 무렵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며(〈그림 10〉), 경향신문은 1991년과 2005년과 2008년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줌(〈그림 11〉).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사수의 급격한 증가에서 차이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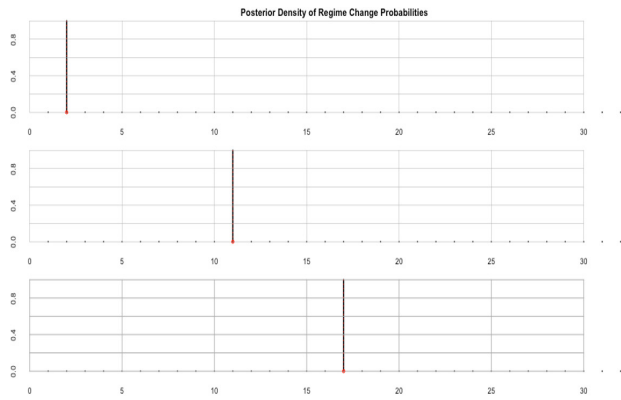
### 3. 한미관계의 구조적 변화시점

- ◆ 기사수의 추이변화에 대한 변화점 탐색기법(changepoint analysis)를 활용하여 한미관계에 대한 언급이 구조적으로 다른 상태로 진입하였는가를 탐색할 수 있음. 동아일보의 경우 변화시점이 1990년~1991년, 1999년~2000년, 그리고 2005-2006년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줌(〈그림 8〉). 중앙일보의 경우 1990년대 초와 2017년에 명확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그림 9〉), 한겨레의 경우 2006년~2008년 무렵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며(〈그림 10〉), 경향신문은 1991년과 2005년과 2008년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줌(〈그림 11〉).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사수의 급격한 증가에서 차이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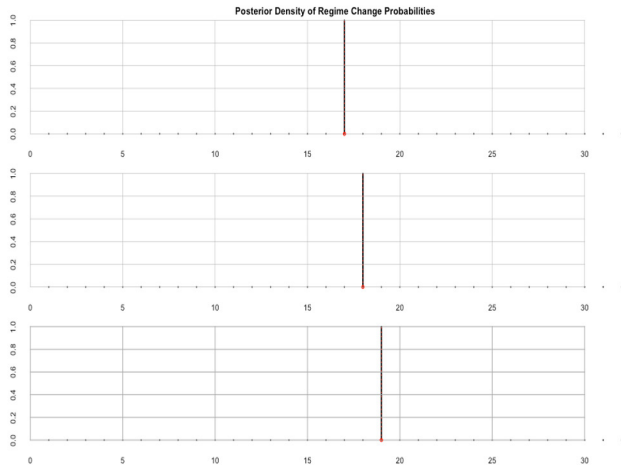
〈그림 8〉 동아일보의 기사수를 활용한 주요변화시점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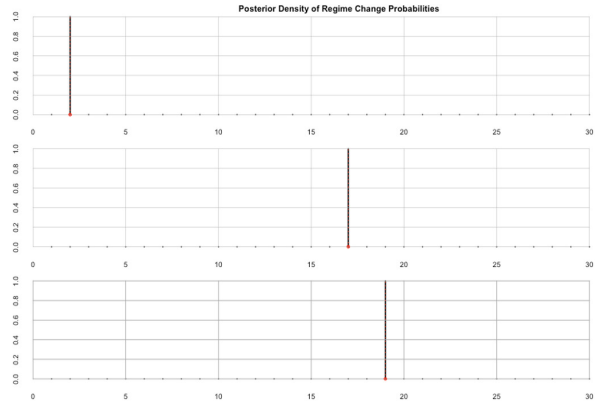
〈그림 9〉 중앙일보의 주요 변화시점 탐색



〈그림 10〉 한겨레의 주요변화시점 탐색



〈그림 11〉 경향신문의 주요 변화시점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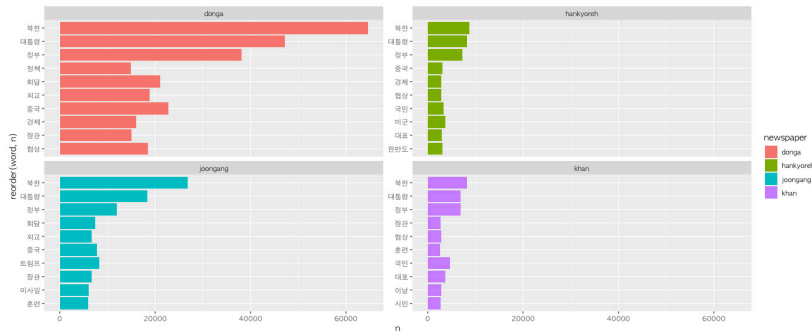


#### 4. 한미관계 관련 주요 키워드 분석

각 신문별 한미관계 관련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신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주제는 북한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 보수적인 매체에서 진보적인 매체보다 북한 문제와 한미관계를 더 빈번히 연계시켜서 다루는 경향을 보임. 한미관계에서 “중국”이 높은 빈도로 언급되고 있음.

- ◆ 각 신문별 한미관계 관련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신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주제는 북한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 보수적인 매체에서 진보적인 매체보다 북한 문제와 한미관계를 더 빈번히 연계시켜서 다루는 경향을 보임. 한미관계에서 “중국”이 높은 빈도로 언급되고 있음.
- ◆ 〈그림 12〉는 각 신문사별 주요 키워드의 빈도를 나타냄. 4개의 신문에서 “한국”, “미국”, “한미” 등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북한”, “대통령”, “정부” 등의 순이었음.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과 “대통령”이 더욱 많은 빈도로 등장하였으며, 한겨레와 경향의 경우는 “북한”, “대통령”, “정부”가 비슷한 빈도로 등장하였음.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회담”, “외교” 등의 단어가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에서는 “중국”이 상위 빈도를 나타냈으나, 경향신문에서는 10위 안에 들지 않았음. 중앙일보의 경우, 트럼프, 장관, 미사일, 훈련 등의 단어가 빈번히 나타났으며, 동아일보의 경우 경제, 협상 등의 단어가 더욱 빈번히 등장했음을 알 수 있음.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경우 “국민”, “한반도”, “시민”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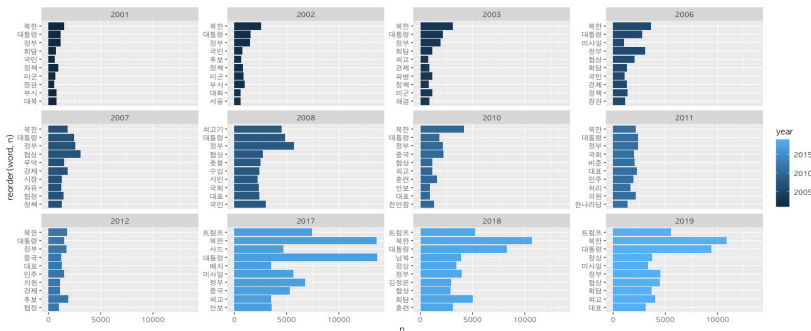
〈그림 12〉 각 신문사별 주요 키워드, 1990-2021



1) 피크 시기의 주요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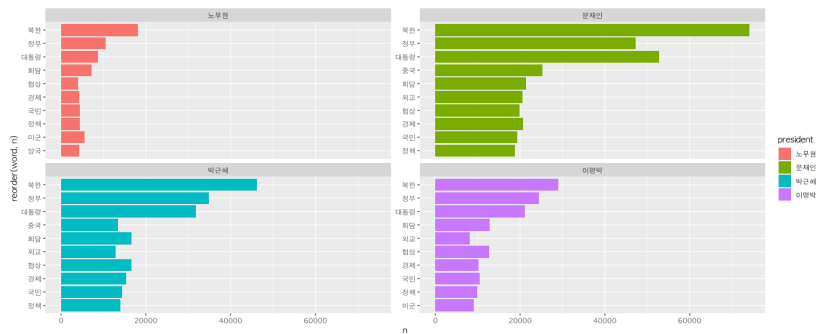
◆ 〈그림 13〉은 기사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 “피크(peak) 시기”에 한미관계 관련하여 등장한 주요 키워드를 나타낸 그래프임. 2001~2003년의 시기에는 “북한”, “대통령”, “정부” 등이 빈번히 등장하는 키워드였으며, “미군”(2001), “후보”(2002), “대화”(2002), “파병”(2003) 등이 빈번히 등장한 키워드였음. 대부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2002), 이라크 파병(2003) 등이 주요 의제였던 시기였음. 2006년-2007년에 주목할 만한 단어는 “미사일”, “협상”, “무역”, “경제”, “시장” 등으로 주로 경제관련 이슈가 주요 키워드였음. 2008년에는 “쇠고기”, “촛불”, “수입”, “국민” 등의 키워드가 빈번히 등장. 2010년~2012년은 “북한”이 전면에 등장하였으며, “중국”이 한미 관계 관련 키워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북한과 중국의 정권교체로 “김정은”과 “시진핑”이 등장하기 시작함. “천안함”(2010년), “한나라당”(2011년) 등이 해당 해에 빈번히 언급된 키워드였음. 2017년~2019년은 “트럼프”와 “북한”이 가장 빈번히 등장하였음. 2017년은 “미사일”, “사드”, “중국” 등의 키워드가, 2018년은 “김정은”과 “훈련”, 2019년은 “미사일”, “정상” 등이 빈번히 등장한 단어였음.

〈그림 13〉 피크 시기 주요 키워드



◆ 동아일보의 경우 모든 피크시기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한 단어는 “북한”이었으며, 두 번째로 빈번히 등장한 키워드는 “대통령”(2002~2016)이었으나, 2017년~2018년은 “트럼프”였음. 2012년에 “중국”이 등장하였으며, 2017년 “사드”, “중국”, “미사일”, 2018년 “남북 정부”, “김정은”, 2019년 “미사일 협상” 등이었음. 중앙일보의 경우 2012년 “중국”이 등장하였으며, 2017년~2019년 “트럼프”, “미사일”, “북한” 등이 빈번히 등장한 키워드였음. 한겨레신문의 경우 2003년 “파병”, 2006년 “자유무역협정”, 2008년 “협정”, “무역” 등이 빈번히 등장하였으나, 급격한 증가는 2008년 수입산 쇠고기 관련 “춧불” 시위였으며, “광우병”이 주요 키워드에 나타남. 2010년 “북한”이 등장하지만. 특이한 점은 “중국”에 대한 언급이 주요 키워드에 나타나지 않음. 2017년~2019년은 “트럼프”, “미사일”, “북한” 등이 빈번히 등장하는 키워드였음. 경향신문의 경우 2008년에 기사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시민”, “춧불”, “쇠고기”, “경찰”, “수입”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이슈, 2011년은 “한미 FTA”, 2017년은 “미사일”, “사드”, 2018년 “훈련”, “남북 정상”. 2019년 “방위비”, “훈련” 등의 이슈가 주로 등장.

〈그림 14〉 각 정부별 한미관계 관련 주요 키워드, 2003~2021



## 2) 행정부별 주요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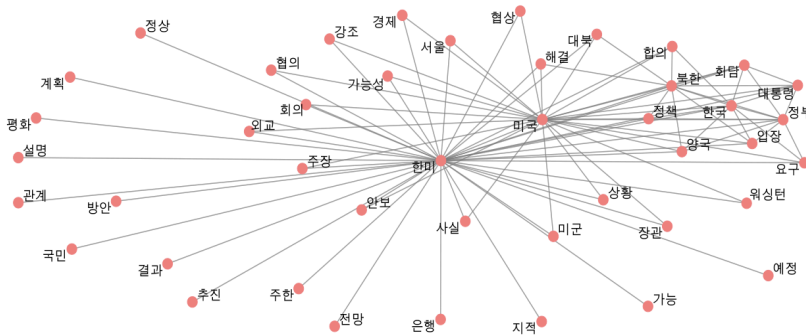
2000년대 이후 각 정부별 한미관계 관련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북한”과 “대통령”, “정부” 등이 빈번히 등장한 키워드였음.

◆ 2000년대 이후 각 정부별 한미관계 관련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북한”과 “대통령”, “정부” 등이 빈번히 등장한 키워드였음.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상대적으로 북한관련 키워드가 빈번히 등장하였으며, 이 시기에 “중국”이 한미관계에 관한 기사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키워드임.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협상”, “미군”, “외교” 등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수를 나타냄. 이는 한미관계에 관한 기사에서 2010년대 이후 북

한은 물론 “중국”이 매우 빈번히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관계 관련 주요 키워드는 북한 관련 문제와 FTA였으며, 이명박 정부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관계 관련 키워드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음. 주요한 차이는 박근혜 정부 이후 등장한 “중국”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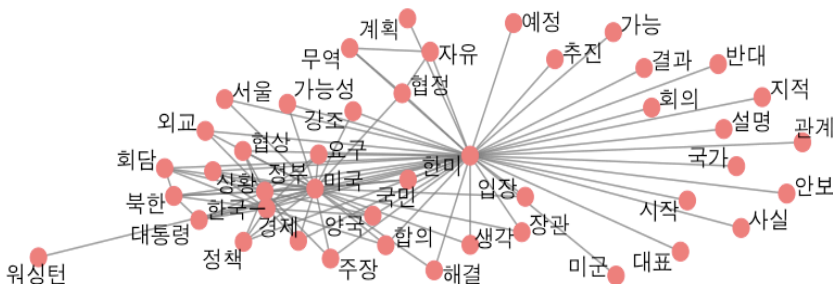
〈그림 15〉 노무현 정부 한미관계 기사 키워드 네트워크



- ◆ 2000회 이상 사용된 단어들을 중심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두드러지게 다른 특징들이 보임.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관계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를 보면 “한국”, “대통령”, “정부”, “북한” 등이 별도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 “대북”, “미군” 등이 또 다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 〈그림 16〉은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 관련 기사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보여줌.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국”, “미국”, “북한”, “대통령” 등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비해 근접하게 나타나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 반면 “미군”은 떨어져서 나타나고 있음.

〈그림 16〉 이명박 정부 한미관계 관련 기사 키워드 네트워크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관계 관련 주요 키워드는 북한 관련 문제와 FTA였으며, 이명박 정부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관계 관련 키워드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음. 주요한 차이는 박근혜 정부 이후 등장한 “중국”으로 보임.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관계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를 보면 “한국”, “대통령”, “정부”, “북한” 등이 별도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 “대북”, “미군” 등이 또 다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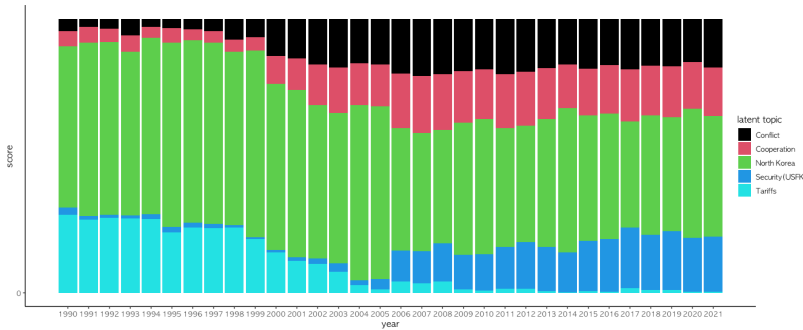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 관련 기사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보여줌.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국”, “미국”, “북한”, “대통령” 등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비해 근접하게 나타나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 반면 “미군”은 떨어져서 나타나고 있음.



## 5. 한미관계 주요 토픽(topic)의 시계열적 변화

- ◆ 1990년에서 2021년까지의 주요 신문기사에 나타난 토픽의 변화를 추적함(〈그림 19〉). 잠재디리클레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활용하여 최적의 토픽수인 5개로 분류하여 시기별 추이를 살펴봄. 북한관련 토픽이 지속적으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한미 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견 혹은 갈등적 상황을 나타내는 토픽들이 2000년대 이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율상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음. 이는 갈등 혹은 협력에 관해서 한미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북한에 관한 기사의 경우 대부분 한미관계 외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되는 뉴스이지만, 2000년대 이후 한미 간의 직접적인 이슈들과 관련된 미군 장갑차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FTA 등에 대한 보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 ◆ 안보와 미군 관련 토픽은 2006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한미 관계에 관한 기사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19〉 한미관계 관련 기사들의 토픽변화, 1990-2021



*북한관련 토픽이 지속적으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미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견 혹은 갈등적 상황을 나타내는 토픽들이 2000년대 이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율상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음.*

*안보와 미군 관련 토픽은 2006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한미 관계에 관한 기사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6. 결론

- ◆ 199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 관한 뉴스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북한”, “대통령”, “정부”임. 이는 외교 혹은 안보 분야에서 신문기사가 정부의 발표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Bennett 2017).
- ◆ 2000년 이후 2006년~2008년을 기점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남. 이 변화가 미디어에 의해서 추동되었다기

*2000년 이후 2006년 ~2008년을 기점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에 구조적인 변화*

2010년대 이후의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에 대한 더욱 빈번한 언급과 “중국”에 대한 언급의 급격한 증가임.

토픽모델 분석 결과는 200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서 북한 혹은 안보에 관련된 뉴스에 추가해서 한미간의 갈등 혹은 협력이라는 이슈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토픽은 북한 및 안보관련 토픽임.

보다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 2003년 이라크 파병 요청 등에서 시작되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 시위 등으로 인한 여론지형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 2010년대 이후의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에 대한 더욱 빈번한 언급과 “중국”에 대한 언급의 급격한 증가임. 북한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미사일”과 관련되며, “중국”에 대한 언급도 “사드”, “미사일”에 대한 언급의 증가와 관련됨.
-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는 노무현 정부는 북한 관련 문제들이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이후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미국”, “한미관계”와 밀접하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 토픽모델 분석 결과는 200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서 북한 혹은 안보에 관련된 뉴스에 추가해서 한미간의 갈등 혹은 협력이라는 이슈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토픽은 북한 및 안보관련 토픽임.

## 참고문헌

- 김계동 외. 2019. 『현대 한미관계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 김준형. 2021.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서울: 창작과비평.
- 박태균. 2006.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서울: 창작과비평.
- 최진섭. 2000. 『한국언론의 미국관』. 서울: 살림터.
- Bennett, Lance W. 2017. “Press-Government Relation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Communication*, ed. Kate Kenski and Kathleen Hall Jamies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in, Gi-Wook. 2010. *One Alliance, Two Lenses: U.S.-Korea Relations in a New Er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저자 약력

■ 이병재

현 연세대학교 디지털 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주요 연구 분야는 통계적 인과추론 및 빅데이터 분석, 전환기 정의, 미국 소수인종의 여론 및 투표행태이며, 대표 논문으로는 “Transnational Absentee Voting in the 2006 Mexican Presidential Election: The Roots of Participation” (*Electoral Studies*, 2012, 공저), “이행기 정의와 인권: 인과분석을 위한 틀” (『국제정치논총』, 2016), “인터넷 댓글을 통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한국정치학회보』, 2018, 공저),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Asia and the Pacific Policy Studies*, 2021, 공저) 등이 있고, 저서로는 『정치학 방법론 핸드북』(서울: 사회평론, 2020, 공저)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김인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조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